

中氣症에 關한 文獻的 考察

玄禹天·李相龍¹⁾

I. 緒 論

中氣證은 精神的인 衝擊에 의해 突然昏倒하여 人事不省이 되고 四肢逆冷하는 病症으로, 發病 후 比較的 短時間 내에 깨어나며 깨어난 후에도 半身不遂, 失語, 口眼喎斜 등 後遺症을 남기지 않는 急症의 하나이다¹⁴⁾.

中氣證의 原因에 대해 王 등^{4,6,7,8,13)}은 “七情內傷, 氣逆爲病 …… 因怒而中者尤多”라 하여 暴怒, 氣逆으로 發生한다고 하였다.

中氣證은 歷代文獻에서 氣中^{4,6,7,8,13)}, 氣厥^{2,3,4,6,7)}, 暴厥⁵⁾ 등의 概念으로 區分되어 記載되고 있으나, 卒然昏倒, 人事不省, 牙關緊急, 手足厥冷 등^{7,8,9,11,13)} 類似的인 內容의 症狀를 包含하고 있으며, 黃²⁰⁾은 現代的 概念으로는 히스테리 發作과 類似的인 것으로 取扱하고 있다.

中氣證의 鑑別 및 治法에 대해 龔^{7,8,9,11,13)} 등은 “中風則身溫口多痰涎脈浮 中氣則身冷口無痰涎脈沈”이라 하여 眞中風과 類中風을 鑑別하였고, 急性期에는 通氣시킴으로써 覺醒하게 하고, 이 후에 順氣하는 治法을 原則으로 提示하였다^{8,9,11,12,20)}.

最近에 朴 등^{23,24)}은 厥症에 關한 文獻的 考察을 試圖하여 厥症의 한 部分으로 中氣證을 言及하였으며, 七情內傷 뿐 만 아니라 外感六淫과 不內外因의 要因까지 包含하여 取扱함으로써, 中氣證에 대한 集中的인 研究가 不足한 實情이다.

이에 著者는 厥症과 類中風, 中에서 中氣證과 症狀面에서 類似的인 氣中, 氣厥, 暴厥 등을 選擇하여 中氣證의 定意 및 病機, 症狀에 대한 文獻的 考察을 통해 若

1 大田大學校 韓醫學科 神經精神科學教室

干의 知見을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本 論

1. 中氣의 定義 및 病因病機

1) 黃帝內經¹⁾

<素問 生氣通天論> 陽氣者, 大怒而, 形氣絕, 血菀于上, 使人薄厥.

<陰陽 應象大論> 故喜怒傷氣, 寒暑傷形, 暴怒傷陰, 暴喜傷陽.

2) 儒門事親²⁾

<卷一 指風痺痿厥近世差玄說> 暴怒而 得之氣厥.

<卷四 厥> 若尸厥痿厥 風厥氣厥酒厥, 可以涌而醒.

3) 脈因證治³⁾

<五厥> 厥亦有腹暴滿不知人者, 或一二日稍知人者, 或卒然衰亂者, 皆因邪氣亂, 陽氣逆 …… 暴怒而得爲氣厥.

4) 丹溪心法附餘⁴⁾

<卷一 外感門> 夫中風中氣一源流也. 皆由忿怒所致, 人之喜怒思悲恐, 五志惟怒爲甚, 所以爲病之暴也. 蓋少壯之人, 氣血未虛, 眞水未竭, 適人怒, 動肝火, 火畏於水, 不能上升, 所以身涼無痰涎, 然須臾便醒者, 水旺, 足以降火也, 比名爲中氣.

5) 醫學入門⁵⁾

內因喜怒傷氣傷志, 氣逆而不下行則血積于心胸, 內經謂之薄厥, 言陰陽相薄 氣血, 奔并而成.

6) 六科準繩⁶⁾

* 暴怒氣逆而, 昏運者 爲氣厥.

* 中氣因 七情內傷, 氣逆爲病, 七情皆能爲中, 因怒而中者尤多.

7) 醫貫⁷⁾

<中風論> 許學士云, 氣中者 因七情所傷. 經日 …… 暴怒傷陰, 暴怒傷陽, 故憂愁不已, 氣多厥逆. …… 經日, 無故而昏脈不至者, 雖不治自己, 謂氣暴

逆也, 氣復自愈.

8) 增補 萬病回春⁸⁾

<類中風證> 類中風者, 則常有之. 有中寒 中暑 中濕 中火 中氣 食厥 勞傷 房勞 痰厥 血暈 中惡 卒死等症, 中於氣者, 由七情過極 …… 中氣症因與人相爭, 暴怒氣逆而暈倒者, 此名中氣.

9) 醫門寶鑑⁹⁾

中氣者 七情過極氣厥.

10) 症治概要¹⁰⁾

<卒中> 中氣: 多因一時情緒激動所引發.

11) 奇效良方¹¹⁾

由七情不調, 氣鬱所致, 以富貴汲汲, 貧賤戚戚, 久思不遂鬱鬱而不得志者, 成此中氣之病, …… 經曰 暴喜傷陽 暴怒傷陰 暴思不樂, 遂名厥逆, 此之謂也.

12) 肝膽論¹²⁾

<肝厥> 忿怒引起之氣厥.

13) 實用中醫學¹³⁾

<類中風> 類中風者, 謂 火中 虛中 寒中 濕中 暑中 氣中 食中 惡中也. …… 氣中七情氣結, 或怒動肝氣, 以致氣逆痰壅.

14) 實用中醫內科學¹⁴⁾

<厥證>

* 定義

厥證是由陰陽實調, 氣機逆亂所引起的 以突然昏倒, 不省人事, 或伴有四肢逆冷為主要表現的一種病證.

發病後一般在短時內蘇醒, 醒後無偏癱, 失語和口眼喎斜等後遺證.

* 病因病機

七情內傷, 氣逆為病, 以因怒而厥者為多, 若所願不遂, 肝氣鬱結, 鬱久化火, 肝氣上逆, 或大怒而氣血并走于上等.

<昏迷> 不省人事, 其發于暴怒氣逆, 皆倒時 口禁握拳者, 為氣厥.

15) 類證治裁¹⁵⁾

自土材以 類中症. 條分火中虛中濕中寒中暑中氣中食中惡中 …… 氣中氣逆 痰潮.

16) 醫宗必讀¹⁶⁾

<類中風> 氣中 七情內傷 氣逆爲病 痰潮昏塞.

17) 景岳全書¹⁷⁾

<厥逆> 厥逆之證，危證也，盡厥者盡也，逆者亂也，則氣血敗亂之謂也。故內經 特重而詳言之，如云卒厥暴厥者，皆厥逆之總名也，…… 又近世猶有氣厥 血厥 痰厥 酒厥 臟厥 蛔厥等症，亦無非本之經義 觀內經諸論 已極明顯 奈何後人 猶有不能察 凡遇此症，則悉認之爲中風，竟不知厥逆爲何病而通作風治 害執甚焉。

<類中風> 氣中 七情內傷 氣逆爲病 痰潮昏塞

18) 東醫精神醫學²⁰⁾

- (1) 흔히 暴喜 暴怒 등 精神的인 충격이 원인이 되어 氣의 循行이 厥逆하게 되므로 오는 수가 많다.
- (2) 그 중에서도 甚한 忿怒끝에 오는 수가 많다.
- (3) 사람에 따라서 中氣症이 자주 되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體質적 素因이 되는 것 같다. 즉 히스테리 등 정신적인 素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소한 충격이나 欲求不滿등에 의해서도 자주 誘發된다.
- (4) 血虛하여 肝經의 鬱火가 盛한 사람은 평소에 怒하기를 잘하며 中氣症도 자주 오는 수가 많다.

19) 醫方類聚²¹⁾

<和劑指南> 氣中 …… 因事激挫，忿怒而不得宣泄，逆氣上行.

<簡易方> 世有氣中 …… 皆由 喜怒不節，氣血暴傷，暴怒傷陽，暴喜傷陰，怒則氣逆，氣血失常，亂于胸中，壅于經絡，滯則生風，漸漸無力，昏困慾倒.

2. 症狀 및 治療

1) 黃帝內經¹⁾

<素門 大奇論> 脈至如喘，名曰暴厥，暴厥者 不知與人言.

<素門 厥論> 帝曰 …… 厥或令人腹滿，或令人暴不知人.

<靈樞 五亂> 亂于臂經，則爲四厥，亂頭厥逆，頭重眩仆.

2) 丹溪心法附餘⁴⁾

又按中氣之證，亦與中風相類，但中風之證，身溫有痰涎，多不能治，中氣之證，身涼無痰涎，須臾便醒.

<卷十九 虛損門> 氣厥者，學中風相似何以別之，風中身溫 氣中身冷，以八味須氣

散, 或 調氣散, 如有痰以四七湯, 導痰湯服之.

3) 醫學入門⁵⁾

古法 暴厥氣逆身冷者 蘇合香丸 八味順氣散.

4) 六科準繩⁶⁾

因氣中以淨湯化 蘇合香丸. 氣厥宜 八味順氣散 或調氣散 或四七湯.

5) 增補萬病回春⁸⁾

氣脈多沈, 風脈多淨, 風中身溫有痰涎, 氣中身冷無痰涎 先用于湯灌救 蘇後即用 木香順氣散, 或藿香正氣散.

6) 醫貫⁷⁾

牙關緊急 若作中風誤治殺人多矣, 蓋中風者, 身溫口多痰涎 中氣者 身涼而無痰涎, 宜蘇合香丸灌之即甦 …… 氣爲人身之陽, 一有拂鬱, 則陰氣不能四達, 故令手足冷, 與中風相而, 但中風身溫, 中氣身冷耳 名曰氣厥, 宜八味順氣散主之.

7) 醫門寶鑑⁹⁾

中氣者 … 昏冒或 牙關緊急, 脈沈身涼 無痰涎 先用 蘇合香丸 薑湯灌救甦後, 宜八味順氣散 藿香正氣散 若誤作中風治死.

8) 奇效良方¹¹⁾

有中氣與中風相類, 語言蹇澁, 涎潮昏塞 不知人事 牙關緊急 但手足不偏廢爲異耳. …… 夫中風中氣何以別之 當辨其脈 若浮盛而 弦速, 或浮而洪, 斯爲風也 脈沈而伏者中氣. 治中氣氣多風少, 先以蘇合香丸 薑汁磨化 擦牙通竅, 人事漸甦, 然後徐徐灌腹, 看其虛實.

9) 肝膽論¹²⁾

<肝厥> 氣厥卒然昏倒 牙關緊急 手足不溫 狀若中風.

10) 實用中醫學¹³⁾

氣中 …… 牙關緊急, 極與中風相似, 但中風身溫, 中氣身涼 中風脈浮, 中氣脈沈, 諸病有根由必須細究, 宜用木香調氣散主之.

11) 類症治裁¹⁵⁾

氣厥症有二, 氣虛氣實, 皆能至厥, 氣虛而厥者 必形色消索, 身微冷, 脈微弱爲氣脫 (藜藿歸朮地黃枸杞之屬) 甚者 (回陽飲 獨參湯) 氣實而厥者, 形色鬱勃, 脈沈弦而滑, 胸膈喘滿爲氣厥, 先理之氣 (四七湯 排氣飲).

12) 醫宗必讀¹⁶⁾

氣中 …… 牙關緊急，極與中風相似，但中風身溫 氣中身冷 風中脈浮 應人迎 氣中脈沈 應氣口 以氣藥治風猶可，以風可治氣則不可 急以蘇合香丸 灌之 候醒 以八味順氣散 加香附 或 木香調氣散 有痰者 星香散 若其人本虛，痰氣上逆 關格不通 宜養正丸。

13) 醫宗金鑑¹⁸⁾

<類中風總括> 類中 類中風證，尸厥中虛氣食寒火濕暑惡皆昏厥 …… 木香調氣飲：實氣中，暴怒氣逆，禁昏痰，風浮肢溫 氣沈冷，木薑砂寇草丁檀 …… 八味順氣散：虛氣中 標本兼 施邪正安 參苓朮草，扶元氣，烏芷青陳，利氣痰。

14) 明醫指掌¹⁹⁾

<類中風> 痰氣若厥逆，身冷脈沈伏，勿作中風治以蘇合香丸，灌醒然後調治，續用烏藥順氣散。

15) 東醫精神醫學²⁰⁾

<症狀>

- ① 卒然昏倒 人事不省. ② 牙關緊急. ③ 手足痙攣 및 厥冷.
- ④ 脈沈. ⑤ 意識喪失時 瞳孔의 對光反應 正常. ⑥ 須臾更醒.
- ⑦ 때로는 覺醒時 忿怒抑鬱 恐怖 驚愕 또는 悲嘆 등 그때의 자기의 감정에相應하는 말이나 표정과 舉動을 나타내며 심하면 幻覺과 곁들여 譫妄狀態에 빠지는 수가 있으며 점차 安靜되어 완전히 각성되든가 또는 睡眠상태에 빠지는 수가 있다.

<類症鑑別：中氣와 中風의 鑑別要點>

- ① 中風脈浮 中氣脈沈. ② 中風則身溫 中氣則身冷.
- ③ 救急方 蘇合香元. ④ 通治方 八味順氣散, 木香順氣散, 星香正氣散.

16) 醫方類聚²¹⁾

<和劑指南> 忽然仆倒 昏迷不省人事，牙關緊急，水足狗攀，氣脈與中風，但口風無涎聲，此證只是中氣，不可妄投取涎發汗等藥，反生他病，但可與七氣湯，分解其氣，散其壅結，基氣自止，七氣湯連服效速，更可與蘇合香丸。

<簡易方> 氣中治之 當順氣理血，不可妄投風藥。

Ⅲ. 總括 및 考察

中氣證은 精神的인 衝擊으로 오는 一過性 痙攣을 뜻하는 것으로 人事不省, 牙關緊急, 手足痙攣 및 厥冷, 脈沈, 須臾更醒 등의 症狀을 나타내는 病症이며, 一時的인 意識障礙를 나타내는데 發病後 比較的 短時間 내에 깨어나고 깨어난 후에는 半身不遂, 失語, 口眼喎斜 등의 運動障礙를 남기지 않아 中風과는 區別되는 急症이다¹⁴⁾.

中氣證의 概念은 宋代 許叔微가 처음으로 類中風の 中氣證과 眞中風을 鑑別함으로써 以後 歷代醫家들에게 影響을 미치게 되었다.

中氣證의 病名은 歷代文獻上에 여러 가지로 言及되고 있는데, 方 등^{4,6,7,8,13)}은 中氣 또는 氣中이라 하였고, 張 등^{2,3,4,6,7)}은 諸厥證 중에 氣厥로 認識하였으며, 李⁵⁾는 暴厥의 概念으로써 氣厥을 說明하였고, 王 등^{4,6,9)}은 氣厥을 中氣라고 언급하였다.

病因病機面에서 方⁴⁾은 “皆由忿怒所致, 人之喜怒思悲恐, 五志惟怒爲甚, 所以爲病之暴也”라 하여 五志 中의 怒情을 中心으로 그 病理를 說明하였으며, “蓋少壯之人, 氣血未虛, 眞水未竭, 適人怒, 動肝火, 火畏於水, 不能上升”이라 하여 少壯之人에게 中氣證이 頻發하는 理由를 言及하였다. 龔 등^{7,8,22)}은 七情過極으로 말미암아 發生하는 것을 中氣證이라 하였는데, 그 病理機轉으로는 暴怒하게 되면 憂愁不已하여 氣厥逆함으로써 暈倒의 症狀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方¹¹⁾은 “由七情不調, 氣鬱所致, 以富貴汲汲, 貧賤戚戚, 久思不遂, 鬱鬱而不得志者, 成此中氣之病”이라 하여 中氣證의 病因으로 七情不調로 氣가 鬱滯된 所致라 하였으며, 朱⁴⁾는 五志之亂으로 氣血失常함으로써 亂于胸中, 壅于經絡하여 漸漸無力, 昏困慾倒하게 되는 病理機轉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黃²⁰⁾은 위의 五志·七情過極으로 인한 氣鬱滯, 經絡壅滯의 病因 뿐 만 아니라, 히스테리 등 精神的인 素因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些少한 衝擊이나 慾求不滿의 刺戟이 주어 졌을 때 中氣證이 자주 되풀이 되는 경우를 보고 體質的인 問題가 病因이 될 수 있음을 言及하기도 하였다.

病狀面에 있어서 素問·大奇論에서는 “暴厥者, 不知與人言”, 素問·厥論에서는 “厥或令人腹滿, 暴不知人”, 靈樞·五亂에서는 “亂于臂脛, 則爲四厥, 亂頭厥逆, 頭重

眩仆” 등의 厥逆에 대한 症狀 表現들이 中氣證의 症狀과 類似하며, 龔 등^{7,8,9,11,13)}은 “中風則身溫口多痰涎脈浮, 中氣則身冷口無痰涎脈沈”이라 하여 中風과 中氣를 鑑別診斷하였고, 方¹¹⁾은 “有中氣與中風相類, 語言蹇澁, 涎潮昏塞, 不知人事, 牙關緊急, 但手足不偏廢爲異耳, …… 夫中風中氣何以別之, 當辨其脈, 若浮盛而弦速, 或浮而洪, 斯爲風也, 脈沈而伏者中氣”라 하여 中氣는 中風과 發現되는 脈이 다르고, 症狀에 있어 手足의 運動障礙가 없는 것이 中風과 다르다고 強調하였다.

한편 黃²⁰⁾은 臨床에서 覺醒時 忿怒抑鬱, 恐怖, 驚愕 또는 悲嘆 등 그때의 자기 感情에 相應하는 말이나 表情과 舉動을 나타내며 甚하면 幻覺과 結들여 謔妄狀態에 빠지는 수가 있다고 하였다.

以上 中氣證의 症狀面을 살펴본 結果, 內經時代에는 中氣證의 概念이 確연이 設定되지 않았으며 단지 氣厥에 대한 症狀으로 人暴不知人, 頭重眩仆 등이 說明되어졌고, 金·元時代를 지나면서 牙關緊急, 卒然昏倒, 人事不省, 手足厥冷, 脈沈 등의 具體的인 症狀들이 表現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治療面에 있어서 方⁴⁾은 “以八味順氣散, 或調氣散, 如有痰以 四七湯, 導痰湯服之”라 하였고, 周⁹⁾는 “先用 蘇合香元, 薑湯灌救경後, 宜八味順氣散 藿香正氣散”이라 하여 急性期에 먼저 覺醒의 效가 있는 藥物로써 通氣시키고 그 以後에 後遺症은 順氣之劑로써 調節한다고 說明하였으며, 吳¹⁸⁾는 中氣證을 虛實로 나누어 實氣中에 木香調氣散, 虛氣中에 八味順氣散을 쓸 것을 強調하였다. 黃²⁰⁾은 中氣證의 治療面을 總括하여 救急方으로는 蘇合香元을, 通治方으로는 八味順氣散, 木香順氣散, 藿香正氣散 등을 使用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考察을 總括하여 보면 中氣證은 暴怒로 인한 氣逆 또는 七情不調로 氣鬱이 되어 急激히 發現되는 急症으로 牙關緊急, 人事不省, 手足厥冷, 脈沈 등의 症狀을 나타내며, 許²²⁾가 最初로 中氣證의 概念을 中風과 區別하여 設定한 후 確연히 鑑別되는 바가 있었으나, 이 후의 醫家들에 의하여 中風과 厥證의 概念이 混同²⁶⁾되면서 中氣證을 厥證의 하나인 氣厥로 認識하기도 하였다. 朴²⁴⁾은 內經에서 언급된 暴厥과 薄厥을 厥證의 形狀으로 보았으나, 方¹⁴⁾은 薄厥과 氣厥의 實證을 血厥로 인식하였으므로 氣厥을 지금의 中氣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中氣證은 現代的 概念으로서 心因性으로 오는 히스테리 發作과 類似한 것으로 取扱하고 있다. 히스테리의 症狀은 身體的·精神的인 問題가 모두 있는 患者에서 볼 수도 있으나 대개 그 어느 한 쪽이 優勢하며 精神的인 것이 주된 症狀일 때

를 解離型, 身體的인 것이 주요 症狀일 때를 轉換型이라 하는데²⁰⁾, 中氣證에서 나타나는 卒然昏倒, 人事不省, 牙關緊急, 手足厥冷 등의 症狀은 一過性的 意識喪失과 痙攣을 뜻하므로 히스테리 轉換型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또한 中氣證은 臨床面에서 癲癇과 類似한 形態로 症狀이 發하여 이에 대한 鑑別이 要求되는데, 樓²⁷⁾는 癲癇에 대하여 “仆時口中作聲, 將省時吐涎沫, 省後又復發, 時作時止而不休息”이라 하였고, 中氣에 대하여서는 “仆時無聲, 省時無涎沫, 省後不復再發, 間有發者, 亦非如癲癇之常發也”라 하여, 發作時 聲響의 有無와 再發의 與否로 區分을 하였는 바, 이는 西洋醫學에서 癲疾과 히스테리 發作的 鑑別을 중요시 하는 점과 相通한다고 할 것이다.

以上の 文獻考察을 통하여, 中氣證은 極甚한 憤怒와 같은 刺戟에 의하여 氣의 順行이 厥逆함으로써 牙關緊急, 卒然昏倒, 人事不省, 手足厥冷, 脈沈 등의 症狀이 發生하는 것으로, 治法은 通氣 然後에 順氣시키는 것을 爲主로 하며, 現代的 意味로는 히스테리 轉換型, 失神(syncope)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癲癇과는 臨床症狀面에서 類似한 形態로 나타나 그의 鑑別이 必要하다고 思料된다.

IV. 結 論

中氣證에 關한 文獻的 考察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中氣證은 精神的인 衝擊으로 發生하는 病症으로, 現代的 意味로는 히스테리 轉換型이나 失神(syncope)에 包含될 수 있다.
2. 中氣證의 病因病機로는 極甚한 憤怒와 같은 刺戟에 의하여 氣의 順行이 厥逆하는 것으로 要約될 수 있다.
3. 中氣證의 症狀은 中風과 類似하나 中風은 身溫 脈浮 口多痰涎한 症狀이 나타나는 반면에 中氣는 身涼 脈沈 口無痰涎한 것이 中風과 區別되는 점이고 中氣症의 主症狀은 卒然昏倒, 人事不省, 手足厥冷 등이다.
4. 中氣證의 治療는 初期 救急方으로 蘇合香元 등을 使用하여 通氣시키고, 然後에 星香正氣散, 木香順氣散, 藿香正氣散 등의 順氣和中之劑를 使用하여 調氣시키는 것이다.

參 考 文 獻

1. 任應秋 外：黃帝內經章句索引, 서울, 一中社, p.13,20,126, 135, 1992.
2. 張子和：儒門事親, 서울, 大星文化社, (卷一) p.16, (卷四) p.8, 1993.
3. 朱震亨：脈因證治,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p.6~7, 1986.
4. 方 廣：丹溪心法附餘, 서울, 大星文化社, pp.91~92, p.658, 1982.
5. 李 梴：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pp.1196~1197, 1985.
6. 王肯堂：六科準繩, 서울, 翰成社. (類方準繩) pp.19~20, (證治準繩) pp.89~94, 1982.
7. 趙獻可：醫貫,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24~26, 1982.
8. 龔廷賢：增補萬病回春, 世一書局印行, p.60.
9. 周命新：醫門寶鑑, 서울, 杏林書院, p. 293.
10. 歐陽錡：證治概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237, 1986.
11. 方 賢：奇效良方, 上海, 商務印書館, pp.1~3, 1977.
12. 章眞如：肝膽論, 湖北省, 湖北科學技術出版社, p.95, 1986.
13. 秦伯未：實用中醫學, 台北, 新文豐出版公社, p.463.
14. 方藥中外：實用中醫內科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356, pp.451~453, 1975.
15. 林珮琴：類證治裁, 台北, 旋風出版社, p.7, pp.350~351.
16. 李中梓：醫宗必讀, 台北, 文光圖書出版社, p. 223.
17. 張仲景：景岳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pp.597~598, 1984.
18. 吳 謙：醫宗全鑑, 台北, 大中國圖書公社, p.80.
19. 黃甫中：明醫指掌, 서울, 癸丑文化社, 1974.
20. 黃義完 外：東醫精神醫學, 서울, 現代醫學書籍社, pp. 611~612, 1987.
21. 湖州中醫學院：醫方類聚,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333, p.338, 1981.
22. 洪元植：中國醫學社,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p.164, 1984.
23. 李和信 外：厥證에 관한 文獻的 考察, 東醫神經精神科學會誌, 4(1) : 1993.
24. 朴宰賢 外：厥證에 대한 文獻的 考察, 東西醫學誌, 4(1) : 1993.
25. 張伯奧 外：中醫內科學, 北經, 人民衛生出版社, pp.226~231, 1988.

26. 秦炯碩 外：中風の 時代の 發展變化와 文獻的 考察, 東西醫學誌, 17(2):
27. 樓英：醫學綱目(2), 台南, 北一出版社, p.12.